

『능호집』(凌壺集) 편집시각 고찰

김수진*

1. 서론
2. 『능호집』 편집의 배경
3. 『능호집』 편집의 양상
4. 『능호집』 편집의 함의
5. 결론

<국문초록>

능호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 1710~1760)의 문집으로는 간본(刊本)인 『능호집』(凌壺集)과 필사본(筆寫本)인 후손가(後孫家) 소장본(所藏本) 『뇌상관고』(雷象觀藁) 등이 존재한다. 그런데 『능호집』과 『뇌상관고』를 상호 대비적(對比的)으로 살펴보면 『뇌상관고』가 능호관의 문학세계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사실과 함께, 『능호집』이 그 문학세계의 중요 부분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노정(露呈)된다. 이에 본고는 『능호집』이 배제한 부분이 무엇이고 그 배제가 일어난 근본 이유는 무엇인지를 탐구하였다.

『능호집』이 『뇌상관고』의 작품 가운데 주로 무엇을 누락시켰는가를 점검해보면 다음 네 가지 경향성이 발견된다. ‘서얼적 면모의 완화’, ‘퇴계(退溪) 관계 글의 배제’, ‘도선적(道仙的) 성향의 소거’, ‘서화기물 취향의 축소’이다. 『능호집』의 편찬자인 윤면동(尹冕東, 1720~1790)은 본래 없던 능호관의 모습을 가공해낸 것은 아니지만, 편집을 통해서 본래 있던 네 가지 측면을 주변화시킴으로써 그 실제상을 미묘하게 변개시켰다. 그것은 윤면동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이 『능호집』의 편집에 계급적·당파적 시각을 투영하고, 사대부적 이념을 구현하고, 이로써 궁극적으로는 의리형 처사를 현창(顯彰)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능호집』의 편찬은 편집자 자신의 개인적 절실함에서 추동되었지만, 영정조(英正祖) 교체기 시대적 분위기와도 조응하면서 당대 정계의 핵심세력인 김종수(金鍾秀, 1728~1799)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고 그 간행을 완결할 수 있었다.

핵심어 : 이인상, 『능호집』, 『뇌상관고』, 윤면동, 편집시각, 의리형 처사

1. 서론

본고는 능호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 1710~1760)의 간본(刊本) 문집인 『능호집』(凌壺集)의 편집시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능호집』은 저자 사후 윤면동(尹冕東, 1720~1790)이 김종수(金鍾秀, 1728~1799)와 합심해 1779년에 간행한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능호관의 문집은, 간본인 『능호집』 외에 필사본(筆寫本)으로 후손가(後孫家) 소장본(所藏本) 『뇌상관고』(雷象觀藁)와 한산이씨가(韓山李氏家) 구장본(舊藏本) 『뇌상관집』(雷象觀集)이 존재한다. 이들 문집을 비교 검토한 결과 후손가 소장본과 한산이씨가 구장본은 동일 계열의 필사본이고, 한산이씨가 구장본→후손가 소장본 시고(詩藁)→간본으로의 계통이 성립한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¹⁾ 그리고 현존 문집이 이처럼 상호 유기적 관련을 맺는 까닭은, 『능호집』의 편집자인 윤면동이 간본이 편찬되기까지 그 예비적 단계로 있었던 필사본의 제작 나아가 원고의 정리를 모두 주관하였기 때문임이 해명되었다.²⁾

그런데 기왕의 연구는 능호관 문학세계에 대한 총체적 연구의 일환으로 현존 문집의 특징을 살핀 것이므로 『능호집』과 『뇌상관고』의 작품 출입 양

1) 김수진, 「家藏本 『雷象觀藁』 小考」, 『한국문화』5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65~84면.

2) 김수진, 「능호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9~28면.

상을 비교하는 선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즉, 간본 『능호집』의 편집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능호집』의 편찬자인 윤면동이 『뇌상관고』의 작품 가운데 무엇을 산삭(刪削)하였는가, 그 취사의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는 비단 서지학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간본 문집은 필사본과 달리 대량 제작되고 널리 유포되므로 저자 사후 그에 대한 역사적 상(象)을 구축한다. 그러므로 『능호집』 편집의 문제는 능호관에 대한 다음 세대의 시각이 어떻게 정향(定向)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능호관 사후 그에 대한 사적(史的) 기억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는가를 알아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고는 『능호집』 편집의 문제를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기왕의 연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윤면동의 편집의식과 그 함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2. 『능호집』 편집의 배경

1) 편찬자 윤면동의 생애

『능호집』의 편찬자인 윤면동은 본관이 해평(海平), 자(字)는 자목(子穆), 호(號)는 오현(娛軒)이다. 오음(梧陰) 윤두수(尹斗壽, 1533~1601)의 7대손이고 윤득일(尹得一, 1680~1732)의 아들이다. 영조대(英祖代) 대사헌(大司憲)을 지낸 윤득화(尹得和, 1688~1759)가 그의 숙부이다. 어려서부터 자질이 뛰어나 숙부가 기대를 품고 과거응시를 권유했지만 사환에 뜻이 없어 그만 두었다고 한다. 1790년에 향년 71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³⁾ 다음은 윤면동의 「절필」(絶筆)이라는 시이다.

3) 윤면동의 가계와 생애에 대해서는 『海平尹氏大同譜』 卷3, 海平尹氏大同譜刊行委員會, 1983 및 尹命烈, 「家狀」, 『娛軒集』 附錄, 규장각 소장본 참조. 한편 정조대 병조 참의(兵曹參議)를 지낸 ‘윤면동’은 『능호집』의 편찬자인 ‘윤면동’과 다른 인물이다. 동시대에 ‘윤면동’(尹冕東)이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탁한 세상 길이 하직하고 멀리 날아가노니
 교송(喬松)과 짝하며 십주(十洲)에 이르리.
 지리한 티끌속세 선연(仙緣)이 적었거늘
 영운(靈胤)이 앞서 떠난 지 몇 해나 되었을꼬.
 長辭濁世遠輕舉,
 共伴喬松到十洲.
 支離塵俗儂緣薄,
 靈胤先吾歲幾遒.⁴⁾

위의 시는 『오헌집』(娛軒集) 시편의 맨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고 ‘八月初八日’이라는 제하주(題下註)가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1790년 음력 8월 8일에 지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윤면동은 그해 음력 8월 19일에 서거했으므로⁵⁾ 운명하기 열흘 전 즈음에 위의 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시의 기구(起句)에 나오는 ‘멀리 날아가노니’[遠輕舉]라는 표현은 「원유」(遠遊)에서 따온 말이다. 굴원(屈原)은 「원유」에서 “시속의 꺾박함을 슬퍼함이며, 훌쩍 날아 멀리 노닐기를 원하노라”라고 읊은 바 있다.⁶⁾ 다음으로 승구(承句)의 ‘교송(喬松)은 선인(仙人) 왕자교(王子喬)와 적송자(赤松子)를 병칭한 것이고, ‘십주(十洲)는 선인이 산다는 바다 속 열 개의 산으로仙境(仙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결구(結句)의 ‘영운(靈胤)은 능호관 이인상과 단릉(丹陵) 이윤영(李胤永, 1714~1759)을 가리킨다. 능호관의 자(字)가 원령(元靈)이고 단릉의 자가 윤지(胤之)이므로 ‘원령’과 ‘윤지’에서 각각 한 글자씩을 취해 ‘영운(靈胤)이라고 병칭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는 윤면동의 현실관 및 능호관과 단릉을 향한 각별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임종의 문턱에서 시인은 자신의 죽음을 선화(仙化)로 묘사하고 있다. 시인의 이러한 태도는 기구와 전구(轉句)에서 나타나듯 당대 세상이 탁세(濁世)이자 티끌속세라는 인식에서 연유한다. 자신이 현재 밭 딛고 있는 세계가 더럽기 때문에 이승에서의 죽음이 오히려 선계

4) 尹冕東, 「絕筆」, 『娛軒集』 卷2.

5) 尹命烈, 앞의 글 참조.

6) “悲時俗之迫阨兮, 願輕舉而遠遊.”(屈原, 「遠遊」, 『楚辭』)

(仙界)로의 초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셈이다.⁷⁾

그런데 이 시의 ‘탁세’라든가 ‘진속’이라는 표현이 비단 수사적 언사가 아님은 시인의 생평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윤면동의 생애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그가 일평생 한 번도 출사(出仕)를 한 적이 없는 처사(處士)라는 점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사환에 뜻이 없어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40대인 1760년에 음보로 선공감(繕工監) 감역(監役)에 제수되었고 다시 60대인 1780년에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제수되었지만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⁸⁾

그는 평소 명나라의 유민(遺民)으로 자임하며 청(淸)의 중원 지배에 강한 반감을 표출하였다.⁹⁾ 관계에 진출한 적 없으므로 국내 정국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남기지 않았지만, 숙부인 윤득화가 영조의 탕평책(蕩平策)에 반대했던 노론계(老論系) 인사라는 점을 고려하건대 그 역시 유사한 입장이었으리라 생각된다.¹⁰⁾ 즉 윤면동은 능호관과 단릉과 현실인식을 공유하며, 영조대의 대외정책과 탕평책에 반대해 의식적으로 처사의 길을 선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윤면동은 정조대(正祖代) 변화된 정국 상황에서도 끝내 출사하지 않았다. 단호(丹壺) 그룹의 핵심 구성원인 능호관, 단릉, 오찬(吳瓚, 1717~1751), 송문흠(宋文欽, 1710~1752)은 모두 영조대 중반에 생을 마감하였으므로 현실정치의 중심에 편입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속했던 노론(老論) 청류(淸流) 일부는 후술하거니와 정조대에 이르러 정계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반면 윤면동은 1790년까지 생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사로서의 삶의 자세를 고수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시에서 능호관과 단릉을 향

7) 단릉 이윤영도 자신의 죽음을 선화(仙化)로 표현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李胤永, 「絶筆, 『丹陵遺稿』 卷10, 규장각 소장본 참조.

8) 尹命烈, 앞의 글 참조.

9) “余大明之遺黎也, 潛伏海外, 抱此書於山間, 以保天遊, 則後之人尚識其悲而無謙益之譏歟?”(尹冕東, 『養花錄跋』, 『娛軒集』 卷3) 및 “自仁廟以來, 我邦先折而辱於虜, 繼以中國顛覆, 夷狄而據中華之土, 禽獸而處人類之上, 腥膻而易禮樂之俗, 天地之變極矣”(尹冕東, 『送從兄靜昭公赴燕京序』, 『娛軒集』 卷3) 참조.

10) 윤득화가 영조의 탕평책에 반대했다는 점은 黃景源, 「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兼同知經筵事尹公神道碑銘」, 『江漢集』 卷14, 한국문집총간224, 290~291면 참조. 이하 한국문집총간은 ‘총간’으로 약칭한다.

한 깊은 그리움과 홀로 남은 비감을 토로하였다.¹¹⁾ 또한 임종 전 마지막 시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능호관과 단릉의 죽음과의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였다. 30여년이라는 시간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단호 그룹, 특히 능호관을 향한 변치 않는 추모(追慕)의 념(念)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삶의 자세를 계승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윤면동이 능호관 사후 유고의 정리에 앞장서고 필사본의 성립과 간본의 편찬을 모두 주관한 데에는 이러한 생애상의 특징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2) 편찬의 시대사적 맥락

다음은 『능호집』 발문의 일부분이다.

나는 관서절도사(關西節度使)로 있을 때 이미 이윤지(李胤之)의 『단릉고』(丹陵稿)를 간행한 바 있다. 이에 해평(海平) 윤자목(尹子穆)이 편지를 보내와 말하길 어찌해서 원령(元靈)의 『능호고』(凌壺稿)를 잇달아 간행하지 않느냐고 하였다. 이윽고 원령의 아들인 영장(英章)이 유고를 갖고 찾아왔는데 자목(子穆)이 산정(刪定)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활자로 인출(印出)한다. (….) 금상(今上) 3년(1779) 7월, 자헌대부 행(行) 평안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도순찰사 관향사 평양부윤, 청풍(淸風) 김종수(金鍾秀)가 쓰다.¹²⁾

위의 글은 『능호집』 편찬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사실을 확인케 한다. 첫째는 『능호집』의 편찬에는 윤면동 외에 김종수도 참여했다는 것, 둘째는 『능호집』 간행 바로 직전에 김종수가 이윤영의 문집을 인행했다는 것이다.

11) 尹冕東, 「李景淵太源 景深始源兄弟, 携金可久魯永 可大魯成, 不期而至, 又招李生士仁義山, 頗有文墨之戲, 嘗與士仁之爺丹陵山人及凌壺子遊, 于今已閱數十年, 窮老獨存, 若隔前塵, 今於此會, 恍如舊遊, 俯仰今古, 不勝慨悽之懷, 適有從兄所示短律, 仍與共次其韻, 「冬日李景淵金可久卜夜來會, 探丹陵稿, 愴念前遊, 拈韻共賦, 『娛軒集』卷2 참조.

12) “余按關西節, 既刻李胤之『丹陵稿』矣, 海平 尹子穆氏馳書謂: ‘蓋續刻元靈『凌壺稿』?’ 已而元靈之子英章, 抱遺艸來謁, 子穆所刪定也. 遂以活字印出. (….) 上之三季孟秋日, 資憲大夫行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管餉使平壤府尹淸風 金鍾秀書.”(金鍾秀, 「凌壺集跋, 『凌壺集』, 총간225, 551~552면)

우선 첫 번째 사항을 살펴보면, 『능호집』 편찬의 주축 인물은 윤면동과 김종수이되, 양자는 세부적으로 맡은 역할이 달랐던 것으로 파악된다. 윤면동이 원고의 실제 편집을 주관했고, 김종수는 간행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발문에서 김종수는 능호관의 아들인 이영장(李英章, 1744~1832)으로부터 유고를 건네받아 문집을 인행했는데 그 원고는 ‘윤면동의 산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 명시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을 살펴보면, 김종수가 『능호집』 편찬에 관여한 데에는 윤면동의 적극적 권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절필」에서도 윤면동은 능호관과 단릉을 병칭했거니와, 그들의 문집 편찬을 상호 연결된 일로 간주하고 『능호집』의 간행을 독촉했던 듯하다. 발문에서 김종수는 이윤영의 문집을 편찬한 뒤 얼마 후 『능호집』을 인출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단릉산인유집』(丹陵山人遺集)은 1779년 음력 5월에, 『능호집』은 같은 해 음력 7월에 간행되었다.¹³⁾

『능호집』과 『단릉산인유집』이 편찬되던 시기의 시대적 동향을 살펴보면, 1779년은 정조가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해이다. 전시대 영조가 붕당(朋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당파의 입장을 떠나 군주에게 귀의할 것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정조는 붕당의 공존 위에 군주가 의리(義理)와 명분(名分)에 입각해서 그 차이를 조정하고자 했다.¹⁴⁾ 또한 자신의 정치를 ‘의리의 탕평’이라고 규정하고, 탕평은 의리에 해롭지 않고 의리도 탕평에 해롭지 않다고 천명하였다.¹⁵⁾ 그리하여 즉위 초 영조대 특권화된 척신(戚臣)을 처단하고 그들과 대립각을 세운 청류 인사들을 적극 등용하였다. 이에 정조대에 이르면 영조대에 탕평책을 반대하던 인사들, 특히 의리에 투철한 노

13) 『단릉산인유집』의 편찬시기는 金鐘秀, 『丹陵集跋』, 『夢梧集』 卷4, 총간245, 548면 참조.

14) 유봉학, 「정조시대 정치론의 추이」,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개, 1999, 77~112면; 「개혁과 갈등의 시대」, 신구문화사, 2009 참조. 영조 후반기에서 정조 전반기의 정국에 대해서는 정만조, 「英祖代 中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再定立」, 『역사학보』111, 역사학회, 1986, 63~111면; 박광용, 「朝鮮後期 ‘蕩平’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김성윤, 『朝鮮後期 蕩平政治 研究』, 지식산업사, 1997; 김정자, 「英祖末~正祖 初의 政局과 政治勢力의 動向」, 『조선시대사학보』44, 조선시대사학회, 2008, 37~102면; 최성환, 「正祖代 蕩平政局의 君臣義理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참조.

15) “蕩平不害於義理, 義理不害於蕩平, 然後方可謂蕩蕩平平之大義理. 今予所言, 卽義理之蕩平, 非混淪之蕩平也.”(『正祖實錄』, 卽位年 5月 16日條)

론 청류 사대부들이 대거 정계에 진출하게 된다.

『능호집』의 편찬에 일조한 김종수는 이 시기 노론 남당계(南黨系) 청류를 이끈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영조대 외척(外戚)을 견제하고 탕평파(蕩平派)의 전횡을 비판한 공적을 인정받아 정조 즉위초부터 1779년 9월 홍국영(洪國榮, 1748~1781)이 실각하기까지 홍국영과 함께 정국 운영을 주도했다. 예컨대 1777년 8월에는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제수되었고,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과 이조 판서(吏曹判書)의 요직을 거쳐 1778년 9월에는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가 되었다.¹⁶⁾ 그리고 평안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1779년 5월에는 『단릉산인유집』을 인행하였고, 바로 뒤이어 7월에는 윤면동을 도와 『능호집』을 간행시켰다. 능호관과 단릉 사후 20여 년 만에 그들의 문집 간행을 일제히 실현시킨 것이다.

전술한 바 『능호집』의 간행에서 김종수가 맡았던 역할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종수는 『능호집』의 실제 편집자인 윤면동과 인척 관계에 있고 능호관과 생전에 교류를 한 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 속에서 『능호집』의 편찬에 일조했다고 여겨진다.¹⁷⁾ 그러나 『능호집』 간행 두 달 전에 『단릉산인유집』이 편찬됐고, 그 편찬에는 김종수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종수의 『능호집』 간행 지원에는 사적 친밀감 외에도 나름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우선 김종수 자신이 전시대에 능호관과 단릉 같은 처사와 뜻을 같이 했음을 드러냄으로써, 스스로가 사대부적 처신에 철저한 인물임을 피력하고자 했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영조대 정국에 비타협적 노선을 견지했던 노론 청류의 문집을 간행함으로써, 자신이 이끄는 노론 남당이 이들 청류의 정신을 계승한 정파임을 명시한 것이라 해석된다. 즉 김종수 자신 나아가 그가 이끌던 정파가 역사적으로 볼 때 시류(時流)에 영합하지 않았고 의리에 투철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단릉산인유집』과 『능호집』의 편

16) 정조 즉위 초 김종수의 관력에 대해서는 『夢梧金公年譜』 卷1, 총간245, 595-596면 및 『正祖實錄』 정조 1년 8월 16일; 정조 1년 8월 19일; 정조 1년 10월 15일; 정조 2년 9월 18일 참조.

17) 김종수는 해평 윤씨(海平尹氏) 윤득경(尹得敬)의 사위이므로 평소 윤면동을 '아저씨[叔]라고 칭하였다. 김종수와 윤면동의 인척 관계는 『海平尹氏大同譜』 卷3, 海平尹氏大同譜刊行委員會, 1983, 89면 및 640면 참조.

찬을 기획하고 지원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능호집』의 간행을 둘러싸고, 경제적 지원을 맡은 김종수와 원고의 실제 편집자인 윤면동의 의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을 터이다. 불우한 삶을 살다간 벗의 글을 간행한다는 기본 동기는 같았으되, 현실 정치에의 참여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합심해 『능호집』을 간행한 것은, 영정조 교체기의 변모된 시대사적 분위기 속에서 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윤면동은 영조의 탕평책에 협조했던 인사들이 정계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청류 사대부가 적극 등용되던 시기에 바야흐로 『능호집』의 간행을 일단락했다. 지기인 능호관을 기리기 위해 『능호집』을 간행했지만, 윤면동의 이러한 기도(企圖)는 의리와 명분이 중시되던 시대적 흐름에도 부응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윤면동의 『능호집』 편찬은 일차적으로는 그 자신의 개인적 절실함에서 추동되었지만, 이 시기의 시대적 요청과도 부합함으로써 김종수의 물질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독특한 정치적 의미까지도 획득할 수 있었다.

3. 『능호집』 편집의 양상

1) 서얼적 면모의 완화

『능호집』에는 「통신사를 전별하다(驛通信使)라는 제목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시는 후손가 소장본 『뇌상관고』 제2책의 <남관속록>(南觀續錄) 편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해당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 필사 후 두 종의 수정이 가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시제(詩題)가 “●驛通信●使”로 되어 있어 제목 중 두 글자가 ‘●’로 도말 표시되어 있다. 같은 작품이 한산이씨가 구장본에는 “奉驛通信上使”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목 중 도말된 두 글자는 각각 ‘奉’과 ‘上’임을 알 수 있다. 『능호집』에는 후손가 소장본의 수정 사항을 반영해 “驛通

信使”로 되어 있는 것이다.¹⁸⁾ 따라서 한산이씨가 구장본에 적힌 “奉驢通信上使”라는 애초의 시제는, 이 작품이 제10차 통신사행의 상사, 즉 정사(正使) 홍계희(洪啓禧, 1703~1771)를 전송하며 지어진 것임을 알게 해준다.¹⁹⁾

다음으로 후손가 소장본은 전별시의 제목과 본문 사이에 도삭(刀削)된 흔적이 발견된다. 해당 부분을 한산이씨가 구장본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서(小序)가 기록되어 있다.

공께서 봉명 사신(奉命使臣)으로 일본을 가시매 내게 편지를 보내시어 서기직(書記職)을 맡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간곡하셨다. 나는 고질(痼疾)이 있는데다 노모(老母)의 걱정을 달랠 수 없으므로 사양하였다. 공께서 다시 채근하지 않으셨으므로 충심으로 감복했거늘 보답할 길이 없고, 바닷가에 따라가 타공(舵工)과 함께 무사항해를 기원해 드리고 싶었으나 관직에 매여 분주해서 그마저도 이를 수 없었다. 마침내 영천(永川) 객사에 가서 사행단을 며칠간 기다리며 하찮은 시 일곱 편을 지어 수하(手下)에 바친다. 공의 마음을 저으기 율음으로써 깊은 감회를 부치고 작은 성의를 표한 것이다.²⁰⁾

한산이씨가 구장본에는 실려 있으나 후손가 소장본에는 잘려져 나간 대목이다. 인용문의 ‘공’은 정사 홍계희를 가리킨다.

이 글은 전별시 창작의 주된 배경이 기술되어 있어 흥미롭다. 홍계희가

18) 익히 논구된 것처럼 능호관의 문집은 한산이씨가 구장본→ 후손가 소장본 시고(詩藁)→간본으로의 계통이 성립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수진, 『家藏本 『雷象觀藁』 小考』, 『한국문화』 53, 2011, 65~84면 참조.

19) 능호관은 사근도(沙斤道)찰방 시절 제10차 통신사행을 전별해준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수진, 『능호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55면 참조. 한편 제10차 통신사의 구성원은 정사(正使) 홍계희(洪啓禧), 부사(副使) 남태기(南泰耆), 종사관(從事官) 조명채(曹命采)이고, 제술관 박경행(朴敬行), 정사 서기 이봉환(李鳳煥), 부사 서기 유후(柳迺), 종사관 서기 이명계(李命啓)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원식, 『조선통신사』, 민음사, 1991, 191~196면;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39~44면 참조.

20) “公奉命日本, 以書招麟祥掌書記, 辭意委曲. 麟祥辭以抱病痼, 無以寬老母之憂. 公遂不復相迫, 中心感服, 無以報謝, 欲追到海昕與舵夫工師共祝利涉, 而縻職奔走, 竟不能焉. 遂趨永川客舍候使車數日, 賦俚詩七篇以獻僕夫. 蓋竊道公之中心, 以寓深感而托微誠焉.”(李麟祥, 『奉驢通信上使』 小序, 한산이씨가 구장본 『雷象觀集』 卷3,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본)

능호관에게 통신사의 서기직을 부탁했다는 점, 능호관이 병환과 노모를 이유로 완곡히 거절했다는 점, 그럼에도 질책하지 않았으므로 홍계희의 배려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전별시가 지어졌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여기서 홍계희가 의뢰했다는 서기직은 정사 자신을 수행하는 서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10차 통신사의 정사 서기는 이봉환이었는데, 이봉환이 능호관 대신에 차출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봉환은 정묘년(丁卯年) 통신사행을 술회하면서 능호관과 김익겸(金益謙, 1701~1747) 같은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용렬한 자신이 서기로 참가해서 일본 문사와의 수창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²¹⁾

그런데 후손가 소장본은 이러한 내용의 소서를 산삭함으로써, 전별시가 지어진 전후 맥락과 저술 의도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능호집』 역시 후손가 소장본의 수정 사항을 반영해 해당 부분을 수록하지 않았다.

『능호집』이 편찬되기 전에 홍계희 일가(一家)는 역적(逆賊)으로 처단되었으므로, 홍계희가 정치적 기휘 인물로 간주되어 그와 관련된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²²⁾ 그러나 소서의 고의적 누락은 비단 홍계희란 인물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뇌상관고』에서 정치적 기휘 인물과 관련된 작품의 경우 그 성명(姓名) 부분이 먹으로 도말되거나 오려지기는 했어도, 이처럼 전체 내용이 일괄 삭제된 경우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서의 일괄 산삭은 그것의 삭제가 어느 한 문구 때문이 아니라 전체 내용에 기인한 것임을 시사해준다.

무릇 통신사의 서기직이란 서얼 중에서도 문사(文辭)에 능한 인물이 주로 임명되던 직책이다. 일본 문객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서기직은 사대부들이 기피하던 일이었다. 따라서 통신사의 서기직이란, 그 직책

21) 이봉환의 해당 언급은 “昔丁卯之役，李麟祥、金益謙，詞翰之美，可謂出類拔萃，而上价恤其私情，不爲帶去，而使如不佞者，忝代其蹻，眞所謂李廣不封，雍齒且侯也。以是之故，蠻館之會，每當詩債文連焚然山積之時，未嘗不搔首汗顏，回想二君之華藻麗翰而不可得也”(李鳳煥，「簡徐參議命膺」，『雨念齋詩文鈔』卷8, 규장각 소장본) 참조.

22) 홍계희의 아들 홍지해(洪趾海)는 세손(정조)의 즉위를 반대하였고, 그의 손자 홍상범(洪相範)은 정조 즉위 초 시해사건에 연루되었다. 이에 1777년 홍계희 일가는 역모죄로 처단되었고 1778년에 간행된 『속명의록』(續明義錄)에서 역적으로 규정되었다. 홍계희 일가의 정치적 부침에 대해서는 최성환, 앞의 논문, 123~125면 참조.

을 의뢰받은 사람이 ‘사대부’가 아니라 ‘서얼’이라는 점을 확연히 드러낸다.

더욱이 해당 글에서 능호관은 각뚝한 경어(敬語)를 구사해 홍계희를 높이고 그의 배려에 지극한 감사를 표하고 있다. 소서에 나타난 홍계희에 대한 능호관의 극진한 태도는, 마치 정사와 서기 간의 수직 관계를 방불케 한다. 비단 이것이 신분적 차이에서 말미암은 것이라 단언할 수 없지만, 적어도 능호관이 사대부였다면 홍계희에게 서기직을 의뢰받고 이를 거절하며 채근을 염려하는 일은 없었을 터이다. 즉, 채근하지 않은 홍계희에게 충심으로 감복하는 능호관의 상황은 그가 신분상 서얼이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서기직의 거절과 그로 인한 걱정, 홍계희에 대한 감복과 극진한 태도가 모두 능호관의 신분상의 특징과 단단히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손가 소장본 『뇌상관고』에서 전별시의 소서를 삭제하고 이로써 『능호집』에서 해당 내용을 일절 실지 않은 것은, 능호관의 서얼적 면모를 완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뇌상관고』에는 이봉환(李鳳煥, 1710~1770)과 유후(柳逅, 1690~?)를 비롯해서 홍림(洪琳), 이덕보(李德輔) 등 서얼 문인과 수창한 시가 실려 있으나 『능호집』에는 해당 작품이 모두 산삭되었다. 물론 『능호집』에는 신사보(申思輔, 1713~1777), 김용겸(金用謙, 1702~1789), 원중거(元重舉, 1719~1790) 등과의 교유가 드러난 작품이 간간히 실려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서얼인사와 관련된 작품의 적출(摘出) 비율이 낮다.²³⁾

좀 더 살펴보면 『능호집』에서 이봉환과의 수창시가 일절 누락된 것은 이봉환이 경인옥사(庚寅獄事)에 연루되어 처형됐다는 점이 그 일차적 이유로 생각된다.²⁴⁾ 반면 취설(醉雪) 유후는 정치적 기휘 인물이 아닐뿐더러 — 그 존재여건과 삶의 지향이 일치하여 — 능호관이 각별히 존경했던 인물이다.²⁵⁾ 따라서 『뇌상관고』에 실린 유후 관련 시 도합 5제 7수가 일괄 산삭

23) 김수진, 앞의 논문, 43면.

24) 경인옥사란 1770년 최익남(崔益南)이 당시 세손이던 정조로 하여금 사도세자의 묘에 참배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장사(杖死) 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봉환은 이 옥사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 한편 능호관과 이봉환과의 수창시에 대해서는 신익철, 「李鳳煥의 椒林體와 落花詩에 대하여」, 『한국한문학회연구』24, 한국한문학회, 1999 참조.

25) 능호관과 유후의 존재관련에 대해서는 박희병, 「이인상(李麟祥) <검선도>(劍僊圖)의 재해석」, 『국문학연구』26, 국문학회, 2012, 47~52면 참조.

된 것은 정치적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유후가 신분상 서열이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게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능호집』은 이봉환과 유후 등 서얼인사와 수창한 작품을 대거 누락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능호관이 사대부 문인과 맺었던 교우는 온존되고, 서얼 문인과 맺었던 교우는 상당부분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2) 퇴계(退溪) 관계 글의 배제

『뇌상관고』에만 실린 「구담소기(龜潭小記)는 단양 구담 주변의 경치를 기록한 글이다. 28편의 단문(短文)으로 이루어졌고, 옥순봉(玉筍峯), 적성산(赤城山), 구봉(龜峰), 강선대(降僊臺), 가은동(可隱洞) 등 단양의 주요 승경지를 묘사하고 있다. 28편의 단문 중 하나를 들어본다.

화탄(花灘)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석벽에 ‘단구동문’(丹丘洞門) 네 글자가 새겨 있다. 세상에 전하길 도산(陶山) 이(李) 선생께서 쓰신 것이라고 한다. 석벽에서 동쪽으로 가면, 여러 봉우리가 우뚝 솟아서 찬란하게 수려하니 마치 옥을 다듬고 금을 녹인 것 같고, 마치 죽순이 껍질에서 솟아난 것 같다. 붉은 색과 푸른색으로 아름답게 빛나면서 뽕족뽕족 구담에 어리비치는 것이 십수 개인데, 구담(龜潭)의 물이 그득하면 그 봉우리의 뿌리가 물에 잠기고 구담의 물이 얇으면 돌길이 드러나게 된다. 매년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시기에 벽을 따라 올라다보면 하늘은 좁다랗고 솔바람은 처량한데, 배 위에서 바라보면 더욱 신묘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누울 수 없게 한다. 도산 선생의 기(記)에서 말하길 ‘이름 짓기를 옥순봉(玉筍峯)이라 한다.’라고 했으니, 그 형상을 언급한 것이다.²⁶⁾

26) “循花灘而右，石崖上刻丹丘洞門四字，世傳爲陶山李先生書。循崖而東，有衆峯突起，陸離森秀，如鏤玉鎔金，如竹發籜。丹碧絢耀，參差映於潭上者十數，潭水盛則峯浸其根，淺則出磴路。每當春夏之交，循壁仰望，雲天爲窄，松籟凄冷，在舟中觀之，尤神秀，令人不敢臥。陶山先生記曰：‘請名之，曰玉筍峯。’以言其形也。”(李麟祥, 『龜潭小記』, 『雷象觀彙』第4冊) 이제부터 능호관의 작품을 인용할 때에는 『뇌상관고』와 『능호집』의 수록 여부를 모두 표시하기로 한다.

옥순봉을 묘사한 부분이다. 옥순봉 초입 석벽에 새겨진 ‘단구동문’(丹丘洞門)이란 글씨가 도산(陶山) 선생의 것이란 얘기로 시작해서 옥순봉이란 명칭도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이 지은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인용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도산 선생의 기(記)’는 퇴계의 「단양산수가유자속기(丹陽山水可遊者續記)」를 가리킨다. 능호관은 퇴계의 유기(遊記)를 직접 인용하면서 구담가의 못 봉우리가 옥순봉으로 명명된 것은 퇴계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적성산(赤城山)을 다룬 단문에서도 능호관은 퇴계가 적성산의 세봉우리를 각각 채운(彩雲), 현학(玄鶴), 오로(五老)로 이름을 지은 경위를 꼼꼼히 기록하였다.²⁷⁾ 그리고 구담(龜潭)을 다룬 단문에서는 구담을 노래한 퇴계의 시를 직접 인용하였다.²⁸⁾ 이처럼 「구담소기」는 단양에 있던 퇴계의 자취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능호집』에는 실리지 못했다.

본래 「구담소기」는 「부정기」(杼亭記)와 짝을 이루는 글이다. 『뇌상관고』에는 ‘기(記)라는 분류 아래 도합 16편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구담소기」는 「부정기」 바로 뒤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부정기」의 맨 마지막에는 “내가 구담을 보고 저이기 느낀 바가 있어 「구담소기」 28단을 만들고 38수의 소시(小詩)를 엮어 동호인에게 보인다.”라고 적혀 있다.²⁹⁾ 따라서 「구담소기」가 「부정기」와의 연장선상에서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정기」는 『능호집』에 수록된 반면 「구담소기」는 『능호집』에 수록되지 못했다. 「구담소기」에 퇴계 이황에 대한 언급이 무려 아홉 번이나 나온다는 점이 문제시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능호관은 1735년 겨울에 퇴어(退漁) 김진상(金鎭商, 1684~1755)을 모시고 충청북도 충주를 거쳐서 경상북도 문경, 구미, 영주, 안동을 유람한 적이 있었는데, 그중 영주와 안동에서의 유람은 퇴계 일파의 자취를

27) “陶山先生過此而記之曰: ‘山雨初霽, 雲物清妍. 忽有玄鶴, 盤桓中峰, 而翀空入雲, 乃名其下峰曰綵雲, 中峰曰玄鶴, 言其時而象其形也. 又有衆峰環立, 樸而不雕, 而儼然可畏如古老人者. 先生名之曰五老峰, 以言其象也.’”(李麟祥, 「龜潭小記」, 『雷象觀藁』 第4冊)

28) “衆峰純浸, 如花亂墜者, 龜潭也. (….) 陶山 李先生詩曰: ‘幾爭激浪崩雲上, 纔入清潭拭鏡中. 鬼刻千形山露骨, 仙遊萬仞鶴盤風.’”(李麟祥, 「龜潭小記」, 『雷象觀藁』 第4冊)

29) “余觀龜潭而竊有所感焉, 遂作「龜潭小記」二十八段, 而係之小詩三十八首, 以示同好者.”(李麟祥, 「杼亭記」, 『雷象觀藁』 第4冊; 『凌壺集』 卷3, 총간225, 522면)

찾는 여정이었다. 일례로 영주 부석사(浮石寺)를 찾아가서는 퇴계 시에 감발을 받아 선비화(仙飛花)를 노래하였고, 백운서원(白雲書院)을 찾아가서는 퇴계의 시에 차운한 작품을 남기었다.³⁰⁾ 백운서원은 이황이 풍기(豊基) 군수 시절 명종(明宗)에게 주청해서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사액을 받은, 조선시대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이다. 또한 안동에 있는 도산서당(陶山書堂)을 방문해서 퇴계의 혼천의(渾天儀)를 더듬어보기도 했고, 퇴계의 문인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세운 옥연정(玉淵亭)과 금난수(琴蘭秀, 1530~1604)가 세운 고산정(孤山亭)을 찾아가기도 했다.³¹⁾

그 유람에서 지어진 시는 <남관록>(南觀錄)이라는 편명으로 묶여 『뇌상관고』 제1책에 수록되었다. 하지만 <남관록>에 수록된 도합 28제 29수 가운데 단 1제 1수만이 『능호집』에 실리게 되었다. 충북 충주의 충렬사(忠烈祠)에서 임경업(林慶業) 장군을 그리워하는 시만이 수록되었을 뿐이다.³²⁾ 참고로 『뇌상관고』에 수록된 20대 운문의 경우 시제를 기준으로 전체의 약 18.5%가 선별되어 『능호집』에 실리었다.³³⁾ 따라서 <남관록>의 28제 중 단 1제의 시만이 『능호집』에 수록된 것은, 20대 평균 적출비율에 1/5에도 못 미친다. <남관록>에 실린 총 11제의 시가 영주와 안동에서 지어진 것인 바 퇴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시를 배제한 데에서 기인한다.

그 결과 『능호집』은 능호관이 1735년에 했던 남쪽 기행의 여정 자체를 알 수 없게 만들었을 뿐더러, 산문과 운문에 걸쳐 퇴계 관계 글이 단 한 편도 수록되지 못하였다.

3) 도선적(道仙的) 성향의 소거

능호관은 벗 이윤영이 단양의 사인암(舍人巖)에 운화정(雲華亭)이라는 정자를 세우자 다음의 기문을 지어주었다.

30) 李麟祥, 「仙飛花 敬次陶山韻」, 「白雲書院 敬次退陶詩」, 『雷象觀藁』 第1冊.

31) 李麟祥, 「巖棲軒」, 「河回玉淵亭門扇 觀西崖詩墨次韻」, 「孤山亭」, 『雷象觀藁』 第1冊.

32) 李麟祥, 「忠烈祠拜林將軍像」, 『雷象觀藁』 第1冊; 『凌壺集』 卷1, 總頁225, 456면.

33) 김수진, 앞의 논문, 34~35면.

하루는 윤지(胤之)가 나를 사인암(舍人巖)의 동쪽 물가로 데리고 갔다. 홀연 바라보니 사인암의 한쪽 벽이 우뚝하니 곧추서 구름에 닿아 있는데, 그 위로 소나무 사이에 정자 난간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게 마치 떨어질 것 같았다. 눈이 휘둥그레져 점점 다가서니, 바위의 형세가 중간에서 돌연 썩 갈라졌고 그 사이로 돌층계가 달걀을 포개놓은 것처럼 수십 층 매달려 있었다. 나도 모르게 걸음을 옮겨 몸을 솟구치니 마치 신선의 호로병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윽고 당도하매 햇빛이 환히 비추고 높은 바위가 주위를 에두르고 있었다. 옥을 모은 듯 철을 묶은 듯 바위가 우수수 쌓여 있는데, 남쪽의 석벽은 가장 방정하고 동쪽의 석벽은 장엄하매 감히 쳐다볼 수 없었다. 그 한가운데에 정자가 있어서 서늘한 산기운을 토납(吐納)하고 있었다. 처음 이자(李子)가 정자를 세울 적에 탄식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운화(雲華)를 먹지 않으면 도를 깨달을 수 없지요.” 그리고 마침내 ‘운화’라는 편액을 달아서 사인암의 기이함을 표시하였다.³⁴⁾

「운화정기(雲華亭記)의 한 대목이다. 위의 글에서 ‘운화’(雲華)란 신선이 복용하는 단약(丹藥)의 일종인 운모(雲母)를 말한다. 사인암의 풍광이 매우 기이해서 마치 단약을 복용한 것처럼 신선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는 뜻에서 정자의 이름을 ‘운화’라고 지은 것이다.

정자의 명명법도 특이하거니와, 위의 글에 묘사된 운화정의 경관은 흡사 선계(仙界)를 방불케 한다. 속세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동혈(洞穴)을 통과하면 선경(仙境)이 펼쳐져 있듯, 운화정은 숨어있는 암혈과 돌층계를 거쳐 비로소 당도하게 되는 별천지와 같다. 특히 인용문의 ‘신선의 호로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라는 말은, 운화정에 ‘선계(仙界)로서의 이미지’를 또렷이 형성시킨다.³⁵⁾

34) “一日, 引余到水東頭, 忽見舍人一面峭立參雲, 松際欄檻隱約搖搖欲墜, 令人駭矚漸進, 石勢忽然中闕, 得懸磴若果卵者數十級, 而不覺轉步騰身, 如入仙人胡廬. 光明洞澈, 而峻石環立, 巖玉鎔鍊, 磊砢淅瀝, 南壁最方正, 東壁壯偉, 不可脫視. 有亭正當石心, 吐納寒翠. 始李子構此, 歎曰: ‘不餐雲華, 不能悟道!’ 遂扁以雲華, 標舍人巖之奇.”(李麟祥, 「雲華亭記」, 『雷象觀藥』 第4冊)

35) ‘신선의 호로병’이란 비유는 「신선전」(神仙傳) 「호공」(壺公)의 설화에 기원을 둔다. 호공이 평소에는 약장수로 살다가 해가 저물면 빈 호리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호리병 안에는 선

기문에서 능호관이 돌층계를 오르는 자신의 모습을 ‘몸을 솟구친다’[騰身]라고 표현한 것도 선계로 들어가는 신선을 떠올리게 한다. 마치 우화등 선하는 신선처럼 능호관은 몸을 솟구쳐 위로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당도한 운화정의 풍광 또한 신비스럽기 그지없다. 광명이 두루 비치고 높은 바위가 에두른 곳에 정자가 자리하는데, 그 정자는 서늘한 산기운을 토납(吐納)하고 있다. 여기서 토납이란 도가의 양생술(養生術)로 단전을 통해 호흡하는 것을 말한다. 신선술의 육체수련 중에서도 호흡수련에 해당한다. 별천지에 위치한 운화정의 기이한 모습이 마치 신선술을 단련하는 선인 같다는 뜻이다.³⁶⁾

이와 같이 『운화정기』는 전편에 걸쳐 도가적 색채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정자의 주인인 단릉과 기문의 작가인 능호관이 선술(仙術)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음을 감지케 한다. 단릉 이윤영의 신선 취향은 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홍낙순(洪樂純, 1723~1782)은 이윤영에게 편지를 보내 단양의 명승을 오래 대하면 봉래산의 신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고, 이윤영 사후 김이곤(金履坤, 1712~1774)은 단양의 우화교(羽化橋)에서 그를 추억하며 고인이 생전에 신선술을 매우 좋아했다고 회고하였다.³⁷⁾

단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능호관도 신선 취향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³⁸⁾ 『능호집』은 『뇌상관고』에 실린 5편의 전(傳)을 일제히 누락시켰는데, 그중에는 신선전(神仙傳) 계열의 작품인 「방숙제전」(方淑齊傳)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능호관은 현란하게 도술을 부리는 신선담(神仙談)에 회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신선상(神仙像)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능호관이 평소 신선사(神仙事)에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궁(仙宮)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고 한다.

36) 이상 「운화정기」의 분석은 김수진, 앞의 논문, 92~96면에 의거한다.

37) “雖然若置身於丹丘靈境，長待此時此景，則真可謂蓬壺上仙，此則當與胤之謀之。”(洪樂純, 『與胤之』, 『大陵遺稿』 卷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韓山 李胤之, 喜文章, 清曠有高志, 尤好神仙之術, 其夫人宰丹陽時, 築羽化橋大川上, 上置一茅亭, 日榘酒爲樂, 及死自言仙歸金剛, 作數疊詩以歌之。”(金履坤, 『過羽化橋書悲』, 『鳳麓集』 卷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38) 능호관의 도선적 취향에 대해서는 박희병, 앞의 논문, 33~47면 참조.

그리고 『뇌상관고』에만 실린 「내양명」(內養銘)은 능호관의 내단학(內丹學)에 대한 조예를 확인케 한다. 내양(內養)은 도가의 내단법(內丹法)을 말하는데, 자기 몸에 내재한 단전(丹田)의 정기(精氣)를 수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능호관은 도가의 내단 수련법이 유가의 수양법과 배치되지 않을뿐더러 상호 연결된다고 역설하였다. 그밖에도 『뇌상관고』에는 신선 왕자교(王子喬)를 읊은 시, 유학과 선불(仙佛)의 장단을 비교한 「주계」(酒戒)란 글이 실려 있으며 『능호집』에는 일제히 누락되었다.³⁹⁾

작품의 창작년도를 보면 「운화정기」는 1754년, 「방숙제전」은 1755년, 「내양명」은 1759년에 지어졌다. 모두 능호관이 40대 중후반에 창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작품에서 엿보이는 ‘선계 지향과 신선 동경’의 경향성은, 그가 젊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추구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호집』은 신선과 도가에 대한 관심이 엿보이는 작품을 일제히 누락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능호관의 도선적 성향을 소거해내었다.

4) 서화기물(書畫器物) 취향의 축소

『뇌상관고』에서 『능호집』으로의 문체별 적출 비율을 살펴보면 애제류(哀祭類, 40.9%)→잡기류(雜記類, 27.4%)→서발류(序跋類, 18.2%)→잡저류(雜著類, 12.9%) 순으로 비율이 떨어진다. 『뇌상관고』에서 잡저류 산문이 제일 많이 떨어졌고 애제류 산문이 가장 적게 떨어졌다는 뜻이다. 이처럼 잡저류 산문의 적출 비율이 제일 낮은 까닭은 다음 두 가지에 기인한다.⁴⁰⁾

첫째, 잡저류(雜著類)로 분류되는 명(銘) 류 산문이 전체의 10.4%만 뽑혀서 『능호집』에 실리었다는 점이다. 별지(別紙)를 제외하면 『뇌상관고』에는 도합 48편의 명문(銘文)이 수록되어 있다. 대제(大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이므로 실제 작품 편수는 70편을 훨씬 웃돈다. 참고로, 결본인 제3책에 수록되었을 서(書)와 서(序) 류의 작품을 논외로 하면 『뇌상관고』 문고(文

39) 李麟祥, 「王子喬」, 『雷象觀彙』 第1冊; 「酒戒」, 『雷象觀彙』 第5冊.

40) 이하 『능호집』과 『뇌상관고』의 작품 출입 양상에 대해서는 김수진, 앞의 논문, 38~42면에 의거하되 본고의 논지에 맞게 상세 서술을 보강하였다.

藁)에서 약 23%의 작품이 추러지고 약 77%의 작품이 덜어진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므로 명(銘) 류 산문의 10.4% 적출비율은 산문의 평균 적출비율에 1/2에도 못 미친다.

좀 더 살펴보면, 『뇌상관고』에 수록된 명문은 대부분 기물명(器物銘)이다. 석인(石印), 종정(鐘鼎), 향로(香爐), 검(劍), 호(壺), 고(觚), 필(筆), 연(硯), 묵(墨), 필통(筆筒), 금(琴), 동경(銅磬), 자명종(自鳴鐘), 원경(圓鏡) 등에 관한 40여 편의 기물명이 실려 있다. 능호관은 조선후기 유수의 전각가(篆刻家)였다는 사실을 웅변하듯, 자신이 소유한 무려 22과(顆)의 석인(石印)에 총 24편의 연작(連作) 명문을 남기었다. 또한 명문 중에는 이윤영, 오찬, 송문흠 등이 소유한 기물에 부친 것이 다수 있으므로, 이들 그룹의 각별한 기물 애호 취향을 확인케 한다. 그러나 40여 편의 기물명 중 단 3편만이 『능호집』에 수록되었다.

둘째, 잡저류로 분류되는 찬(贊) 류 산문 8편이 모조리 산삭되었다는 점이다. 『뇌상관고』에 수록된 8편의 찬은 사찬(史贊)이 1편, 인물찬(人物贊)이 1편, 서화찬(書畫贊)이 6편이다. 서화찬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능호관이 문인화가였다는 점에 연유한다. 하지만 해당 글은 모두 『능호집』에 실리지 못했다.

한편 서발류(序跋類) 산문의 적출 비율이 잡저류 다음으로 낮은 까닭도 이와 무관치 않다. 『뇌상관고』에 실린 22편의 발(跋) 가운데 무려 13편이 서화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집에 수록된 서발류 산문이 대개 서책이나 문학작품에 관한 것이란 점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서화에 관한 발문은 단 3편만이 『능호집』에 수록되었다.

더욱이 『능호집』에 실린 작품의 경우에도 누락된 작품과 비교해보면 일정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대표적 예로 『뇌상관고』에는 관아재(觀我齋) 조영석(趙榮祜, 1686~1761)의 그림에 부친 두 편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관아재 <사계첩> 발문(觀我齋霽臍帖跋)은 조영석의 풍속화에 대한 수준 높은 비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당 작품은 『능호집』에 실리지 못했다. 반면 「관아재 <지산도> 초본 발문(觀我齋芝山圖草本跋)은 조영석의 회화세계보다는 그 정치적 입장과 사승관계에 서술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해당 작품은 『능호집』에 수록되었다.

마지막으로 잡기류(雜記類) 산문의 적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내부적으로 보면 서화 관계 글의 적출 비율이 낮다. 잡기류에는 하위 문체로 기(記), 유기(遊記), 잡기(雜記), 지(識), 화잡지(畫雜識)가 있다.⁴¹⁾ 여기서 ‘화잡지’로 분류된 글은 모두 그림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화잡지’에 실린 10편 가운데 단 2편만이 『능호집』에 수록되었다. 즉 ‘화잡지’의 적출 비율은 20%인데, 이 수치는 『뇌상관고』 산문의 평균 적출 비율 23%에 못 미칠뿐더러 잡기류의 평균 적출 비율 27.4%에도 못 미친다.

이와 같이 『뇌상관고』의 수록작은 잡저류, 서발류, 잡기류에 걸쳐 공히 저자의 서화기물 취향을 보여주는 글들이 다수 산삭되었다. 『뇌상관고』에 서화기물 관련 글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능호관이 그림, 서예, 전각에 두루 능한 예술가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능호집』은 『뇌상관고』의 서화기물 관련 글을 대거 덜어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저자의 예술가로서의 측면을 축소시키고 문인으로서의 측면을 부각시켰다.

4. 『능호집』 편집의 함의

1) 계급적·당파적 시각의 투영

지금까지 『능호집』의 편찬자인 윤면동이 『뇌상관고』의 수록작 가운데 주로 어떤 내용의 작품을 산삭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제부터는 윤면동이 능호관의 작품을 선별한 원리에 대해 고민해보기로 한다. 작품의 선택적 배제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이고, 그 선별을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목표는 무엇이었는지를 탐색하려는 것이다.

먼저, 『능호집』 편집의 양상 가운데 ‘서얼적 면모의 완화’는 넓게 보면

41) 상위문체의 ‘잡기(雜記)’와 세부문체의 ‘잡기(雜記)’는 이름은 같지만 외연이 다르다. 세부문체의 ‘잡기’는 사물과 관련된 기문, 즉 기물류(記物類)의 기문(記文)을 의미하는 반면 상위문체의 ‘잡기’는 누정기(樓亭記), 당기(堂記), 산수유기(山水遊記), 기물류(記物類)의 기(記)를 아우른다.

아화(雅化)의 일종으로 해석된다. 능호관의 신분적 특징을 강하게 드러내지는 않음으로써, 저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아화에도 여러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출판 단계에서 저자에게 누(累)가 될 만한 요소는 문집에 수록되지 않거나, 혹은 수록되더라도 왕왕 수정되거나 축소되기 마련이다. 당대의 각종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되고 물의를 일으킬 내용이면 편집과정에서 증삭(增削) 혹은 변개(變改)되기도 하고,⁴²⁾ 양반의 체모에 어긋나는 내용과 표현의 글은 추후 무난하게 수정되기도 한다.⁴³⁾

이에 반해 『능호집』에서 이루어진 ‘서열적 면모의 완화’는 작품의 내용이라든가 제재, 표현방식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신분적 특수성이 문제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도덕적 엄숙주의에 기초한 아화가 아니라 계급적 시각에 기초한 아화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계급적 시각이란, 조선시대 신분제도 안에서 사대부와 서얼 간의 신분상의 차이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엄별하는 사고방식을 가리킨다.⁴⁴⁾

물론 능호관이 신분상 서얼이라는 점은 변화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운면동은 전별시의 소서(小序)를 삭제하고 서얼 인사와의 교유가 드러난 작품을 다수 산삭해냄으로써, 능호관의 서열적 면모를 상당히 탈각시켰다. 이러한 편집은 기본적으로 사대부와 서얼은 엄연한 신분상의 차이가 있고, 신분이란 그것에 속한 인물을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고를 전제로 한다. 능호관의 신분상의 특징이 그에게 결점이 된다는 생각, 즉 신분적 관점이 편집의 원리로 작동한 것이다.

한편 『능호집』 편집의 양상 가운데 ‘퇴계 관계 글의 배제’는 당파적 시각

42) 류탁일, 「韓國 옛 '文集'의 樣態와 出版科程」, 『嶺南地方出版文化論攷』, 세종출판사, 2001, 382면.

43) 일례로 『열하일기』(熱河日記)의 경우, 내용면에서 양반의 체모에 어긋나는 저자의 소탈한 언동이 드러난 부분과 문체면에서 과도한 해학적 표현이 나오는 부분은 개작본(改作本)에서 무난한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명호, 『熱河日記 研究』, 창작과비평사, 1990, 44~47면; 김성철, 「옛 사람들의 文集校正」, 『민족문화사연구』3, 민족문화사학회, 1993, 192~206면 참조.

44) 본고에서 사용하는 ‘계급적 시각’이란 용어는, 생산수단의 소유에 따라 지배·피지배의 관계로 나뉘는 사회적 계급에 바탕한 시각 즉 계급의식이 아니라, 조선시대 신분제도에 기초한 차등적 시각 즉 신분적 관점을 의미한다.

의 발로(發露)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퇴계 이황은 역사적으로 노론의 반대파인 동인(東人)의 영수이다. 동서(東西) 분당에서 동인 쪽 인물은 대부분 이황과 조식(曹植, 1501~1572)의 제자였다. 동인은 다시 북인(北人)과 남인(南人)으로 분파되었고, 서인(西人)은 다시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으로 분파되었다. 능호관이 속한 노론은 역사적으로 소급하면 서인으로 분류되므로, 퇴계가 종장으로 있던 동인과는 정치적으로 대척적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호관은 당파적 차이에 개의치 않고 여러 작품에서 퇴계에 대한 존모감을 표출한 데 반해, 편집자 윤면동은 당파적 시각에 입각해서 추후 퇴계와 관련된 작품을 일괄 산삭한 것으로 판단된다.

침언하자면, 『능호집』보다 두 달 앞서 출판된 『단릉산인유집』도 동일한 방식으로 편집되었다. 이윤영의 문집으로는 『단릉산인유집』 외에 『단릉유고』(丹陵遺稿)가 남아 있다. 『단릉유고』는 1780년에 타계한 이윤영의 부인 경주김씨의 제문(祭文)이 실려 있으므로 간본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단릉산인유집』에 빠진 시문을 대거 수록하고 있으므로 간본 편찬 이후 개간본(改刊本)을 만들기 위해 준비했던 정고본(定稿本)으로 추정된다.⁴⁵⁾ 그런데 『단릉유고』 수록작 중 퇴계가 등장하는 작품은 일절 『단릉산인유집』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릉산인유집』도 『능호집』과 마찬가지로 편찬자의 당파성에 입각해서 작품을 취사선택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능호집』의 편집에는 계급적·당파적 시각이 투영되어 있다. 편집자의 신분적 관점은 저자의 서열적 면모를 완화시켰고, 그 당파적 시각은 노론의 사적(史的) 계보에 배치되는 작품을 제외시켰다. 편집자의 시각이 수록작 선정에 개입되어 저자의 실제상을 미묘하게 조정해놓을 수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2) 사대부적 이념의 구현

그러면 『능호집』 편집의 양상 가운데 ‘도선적 성향의 소거’는 어떠한 편

45) 『단릉산인유집』과 『단릉유고』의 관계는 박경남, 「丹陵 李胤永의 『山史』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6~7면 참조.

집의식에 기초한 것일까? 이 점을 알아보기 위해 잠시 유만주(兪晩柱, 1755~1788)의 『능호집』 독서평을 읽어보기로 한다.

- (1) 『능호집』(凌壺集) 2책을 보았다. 금년 맹추(孟秋)에 평양부윤(平壤府尹) 김중수(金鍾秀)가 인행하고 발문을 붙인 것이다.
- (2) 원령(元靈)의 도는 성색화리(聲色貨利) 네 글자를 붓 끝에 붙이지 않는다. 붓 끝에 붙이지 않을 뿐더러 입에도 붙이지 않는다. 입에도 붙이지 않을 뿐더러 마음에도 붙이지 않는다. 성색화리를 버리고 사우문묵(師友文墨)을 운명으로 삼은 인물이 세상에 능히 몇이나 되겠는가?⁴⁶⁾

인용문 (1)은 유만주의 『흙영』에 수록된 1779년 12월 3일의 일기이고, (2)는 같은 해 12월 19일의 일기이다. 전술한 바 『능호집』은 1779년 7월에 간행되었으므로 인용문 (1)은 유만주가 『능호집』이 간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책을 입수해 읽었음을 알게 해준다.⁴⁷⁾

그리고 인용문 (2)는 그가 『능호집』 독서 후 저자인 능호관에 대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가늠케 한다. (2)에서 유만주는 능호관이 성색화리(聲色貨利)를 벗어난 인물이라고 총평하고 있다. 음악·여색·재물·이익에 대한 욕심을 글에 조금도 나타내지 않았을 뿐더러, 그 입과 마음에서조차 담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능호관이 성리학적 도덕 이념에 부합하는 고매한 인물이라는 뜻으로, 극진한 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유만주의 능호관 인식은 『능호집』 독서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인용문 (1)의 이어지는 대목에서 그는 『능호집』의 수록작 일부를 초록해놓았다. 유만주가 베낀 글을 살펴보면, 독서에 힘쓰으로써 이익과 외물에 연연치 않는 마음을 기르자는 편지, 쇠미한 때일수록 군자는 스스로를 깨끗

46) “見『凌壺集』二冊，今歲孟秋，平壤府尹金鍾秀印而跋之。”(兪晩柱, 『欽英』第8冊, 1779年 12月 3日條, 규장각 영인본 제2권, 572면); “元靈之道，聲色貨利四字，筆頭不着，非徒筆頭不着，於口頭不着，非徒口頭不着，亦於心頭不着。夫外聲色貨利，而能以師友文墨爲命者，世間能有幾人?”(兪晩柱, 『欽英』, 第8冊, 1779年 12月 19日條, 규장각 영인본 제2권, 582면) 이하 『흙영』에 나오는 『능호집』 관련 내용은 김하라 박사의 도움을 받아 알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47) 유만주의 『능호집』 독서는 김하라, 「兪晩柱의 『欽英』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94면 참조.

이 하고 이해에 따라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고 논하는 편지, 명나라는 부모의 나라이니 청에 대한 복수를 도모해야 한다는 송서(送序) 등이다.⁴⁸⁾ 초록한 작품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유만주는 『능호집』에 나타난 저자의 도덕적 면모에 가장 큰 감명을 받아, 관련 글을 적어놓은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능호집』에 나타난 저자의 도덕적 면모는 『뇌상관고』에 포함된 그의 도선적 성향을 소거함으로써 일면화되고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선적 성향은 능호관이 현실과 비타협했지만 그와 동시에 현실을 초월하고 싶어 했다는 점을 드러낸다. 또한 그가 조금의 회의 없이 이념을 고수했던 인물이 아니라 현실의 무게로 인해 거듭 갈등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이것은 ‘인간 능호관’을 보여주는 대신에, 그를 이상화하는 데에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서 ‘선계 지향과 신선 동경의 경향’은 ‘초세간적’(超世間的)이자 ‘번민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능호집』이 확보한 저자의 높은 도덕성에 흠결을 가한다. 사대부는 ‘현실 안에서 성색화리를 경계하는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 ‘현실을 벗어나서 신선과 같은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호집』은 후자의 조짐이 엿보이는 글들을 배제함으로써 전자의 순수성을 지켜내었다. 그 결과 『능호집』은 성리학적 도덕 이념에 지극히 부합하는 인물로 능호관을 부조(浮彫)하였다.

이러한 윤희동의 편집의식은 유만주의 독서평을 고려하건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유만주는 1782년에 『능호집』을 다시 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이 부화한 사대부에게 들어가 민멸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기획한 총서 안에 넣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능호관과 단릉 그리고 송문흙과 오찬의 문집 4종을 함께 엮어 “성색화리 너머의 책”(聲色貨利以外之書)이라고 명명할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다.⁴⁹⁾ 『능호집』에 나

48) 俞晚柱, 『欽英』第8冊, 1779年 12月 3日條, 규장각 영인본 제2권, 572-574면. 여기에 초록된 작품은 李麟祥, 「與申子成甫書」, 「與李胤之書」, 「送李學士惟秀赴燕序」 등, 『凌壺集』卷3, 총간225, 505면, 510면, 516면 참조.

49) “重閱李麟祥『凌壺集』二冊”(俞晚柱, 『欽英』, 1782年 10月26日條, 규장각 영인본 제4권, 421면); “『凌壺集』亦當入叢書也, 不容泯而夷之於浮夸之士零瑣瑣錄也.”(俞晚柱, 『欽英』, 1782年 11月 4日條, 규장각 영인본 제4권, 424면); “擬萃凌壺丹陵宋公清修四集, 全編一帙, 題曰聲色貨利以外之書, 當亦稍奇.”(俞晚柱, 『欽英』, 1784年 5月 16日條, 규장각 영인본 제5권, 228면)

타난 저자의 고결한 정신세계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능호집』 편집의 양상 가운데 ‘서화기물 취향의 축소’도 사대부적 이념과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윤면동은 『뇌상관고』에서 서화기물 관련 글을 다수 제외시킴으로써 능호관의 서화가로서의 측면보다는 문인으로서의 측면에 하이라이트를 가하였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능호관에 대한 당대인의 피상적 시각을 의식한 반동(反動)으로 해석된다. 능호관 사후 이민보(李敏輔, 1720~1799)는 고인의 생평을 회고하며 “여사인 묵묘(墨妙)는 유희에 불과했거늘 분분한 저들이 알파히 알아 그대의 한 가지 재주만을 흠모했지요”라고 개탄하였다.⁵⁰⁾ 따라서 윤면동은 — 서화가로서의 능호관의 뛰어난 능력은 실제 그림과 글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거니와 — 『능호집』에서는 순연한 문인으로서의 저작에 중점을 두으로써 문학과 서화를 넘나드는 저자의 문예세계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자 했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윤면동의 편집은 능호관에 대한 통념화된 시각을 바로잡으려는 의도의 소산이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조선시대 사대부가 견지했던 문예에 대한 양가적(兩價的) 태도에서 근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조선시대 사대부는 육예(六藝)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기본 소양을 쌓아야 했지만, 예술을 전문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문장과 서화는 소도(小道)라는 생각, 완물상지(玩物喪志)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예술에 능한 것은 특장이지만 여기에만 국한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생각이 보편적이었다. 즉 문예적 능력은 사대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형의 필수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었다. 도덕과 학식,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역량 등이 겸비될 때 비로소 예술적 능력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예술적 능력 그 자체만으로는 기예인(技藝人)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윤면동은 조선시대 사대부가 공히 견지한 문예에 대한 양가적 태도로 말미암아, 능호관의 서화가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되

50) “餘事墨妙, 不過遊戲, 紛彼淺知, 慕其一藝.”(李敏輔, 「祭李元靈麟祥文」, 『豊壺集』 卷8, 총간 232, 442면)

상당부분 축소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써 능호관을 서화가로만 보던 당대인의 시각에 제동을 걸고, 궁극적으로는 사대부의 문예관에 비추어볼 때 그를 단순히 기예인으로 폄하할 수 없도록 형상화한 것이라 판단된다.

앞서 살핀 ‘도선적 성향의 소거’가 사대부적 도덕 이념을 반영한 것이라면, ‘서화기물 취향의 축소’는 사대부적 문예 이념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 두 가지 편집의 양상은 모두 능호관을 사대부적 이념에 부합하는 아이디얼 타입의 인간형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3) 의리형 처사의 현창(顯彰)

지금껏 논한 바와 같이 윤면동은 작품의 선별적 배제를 통해서 능호관을 대단히 고아(高雅)한 인물로 부조(浮彫)하였다. 그렇다면 『능호집』 편집에 이처럼 사대부적 이념이 도저하게 구현된 까닭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사대부적 이념에 부응하는 이상화(理想化) 작업이 수행된 까닭은 무엇일까?

『능호집』 편집의 기저(基底)에는 편집자의 저자를 향한 추모(追慕)의 념(念)이 자리하고 있다. 윤면동은 능호관 사후 그의 생애와 글을 논하면서 고인이 의리의 문제에 투철했다는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이원령 제문(祭李元靈文)에서는 능호관이 “천하의 지극히 불운한 시기를 만나, 천하의 지극히 궁한 몸으로, 천하의 비통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술회하였다.⁵¹⁾ 능호관이 명나라가 망한 말세의 시기에 태어나, 변방인 조선의 일개 선비의 몸으로, 복수의 의리를 강구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원령의 글에 제하다(題李元靈文後)에서는 능호관이 굴원처럼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충직했다는 점, 의리를 고수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⁵²⁾ 즉, 이인상을 ‘의리형 처

51) “嗚呼! 當天下極否之運, 以天下至窮之身, 行天下可悲之事.”(尹冕東, 「祭李元靈文」, 『娛軒集』卷3)

52) “余嘗讀元靈之文, 以爲屈原之過於忠, 又見其友題詩卷者, 則惜其出於變風變雅之間, 元靈所執之義, 固甚美也. 然古亦有因其時而言, 隨淺深隆興以後, 端人正士羞道之, 雖以尤翁之寤寐大義, 而不能或發其蘊蓄也.”(尹冕東, 「題李元靈文後」, 『娛軒集』卷3)

사’로 주목하고 그의 일생에 대단한 존모감을 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리형 처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그들은 도학자형 처사라든가 문장가형 처사와는 동일시될 수 없는 뚜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세계에 대한 비극적 인식과 비타협적 삶의 자세, 지조의 중시가 그것이다. 또한 그들이 중시한 의리 중 하나가 대명의리(對明義理)였다는 점에서 전시대 절의지사(節義之士)와도 변별된다. 여말선초(麗末鮮初)와 세조(世祖)의 왕위찬탈 시기에도 출처의 의리를 따져 은거했던 인물들이 속출하였지만, 이는 고려 혹은 조선이라는 지역적·종족적 울타리 안에서 전시대의 왕조라든지 옛 군주에 대해 절의를 지키는 것이었다. 반면 저들이 강구한 의리는, 조선이 제후국으로서 명나라에 지켜야 하는 의리이자 조선의 신하가 배신(陪臣)으로서 명나라의 군주에게 지켜야 하는 의리이다. 일국적(一國的) 관점을 넘어서는 의리이자 주자학적 세계관에 입각해 중화질서를 완벽히 내면화한 결과로서의 의리이다. 그 점에서 능호관과 윤면동이 걸었던 ‘의리형 처사’의 길은, 전시대 절의지사와도 구분되는 특수한 역사성을 갖는다.

이에 윤면동은 『능호집』의 편찬을 통해서 도학자형 처사라든지 문장가형 처사와 결코 혼동될 수 없는 ‘의리형 처사’의 생을 제시하고, 전시대 절의지사와도 구분되는 그들의 특수한 가치관을 표창함으로써 그 사적 정당성을 부여받고자 한 것이라 판단된다. 능호관을 ‘의리형 처사’의 전범격의 인물로 추모함으로써 이 시기 대명의리를 지키며 은둔했던 다수의 의리형 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역사적 현창(顯彰)을 기도하기 위함인 것이다. 추모란 고인의 특정 위업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상화의 과정을 수반한다.

더욱이 윤면동이 능호관에게 품었던 추모의 넘에는 편집자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내재해 있다. 윤면동 역시 명나라의 유민으로 자임하면서 종내 처사로 생을 마감하였다. 따라서 그에게 능호관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같은 길을 걸었던 자신의 과거를 반추하는 행위이자 현재 자신의 존재 근거를 더듬는 일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과 뜻을 함께 했던 벗을 기림으로써 현재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고 나아가 그 사회적 존재감까지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오면, 윤면동이 『능호집』 편집에서 사대부적 이념을 도저히 구현함으로써 능호관을 고아한 인물로 축조해낸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 조선후기 새롭게 등장한 의리형 처사의 모습을 조명하고, 그들에 대한 역사적 정당화를 기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윤면동이 『능호집』의 간행 외에도 그 예비적 단계로 있었던 유고의 수습, 필사본의 제작을 모두 주관 하였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도 납득케 된다. 비단 능호관이 그의 평생의 지기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능호관에 대한 사적(史的) 평가가 바로 자신의 그것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5. 결론

『능호집』과 『뇌상관고』는 서로 맞대어 비교할 때 비로소 그 자료적 가치가 명징하게 포착된다. 『능호집』과 『뇌상관고』를 상호 대비적(對比的)으로 살펴보면, 『뇌상관고』가 능호관 문학세계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사실과 함께, 『능호집』이 그 문학세계의 중요 부분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노정(露呈)된다. 이에 본고는 『능호집』이 배제한 부분이 무엇이 그 배제가 일어난 근본 이유는 무엇인지를 탐구하였다.

『능호집』의 편찬자인 윤면동이 『뇌상관고』의 작품 가운데 주로 무엇을 누락시켰는가를 점검해보면 다음 네 가지 경향성이 발견된다. ‘서얼적 면모의 완화’, ‘퇴계 관계 글의 배제’, ‘도선적 성향의 소거’, ‘서화기물 취향의 축소’이다. 윤면동은 본래 없던 능호관의 모습을 가공해낸 것은 아니지만, 편집을 통해서 본래 있던 네 가지 측면을 주변화시킴으로써 그 실제상을 미묘하게 변개시켰다. 그것은 윤면동이 『능호집』의 편집에 계급적·당파적 시각을 투영하고, 사대부적 이념을 구현하고, 이로써 궁극적으로는 의리형 처사를 현창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능호집』의 편찬은 편집자 자신의 개인적 절실함에서 추동되었지만, 영정조 교체기 시대적 분위기와도 조응하면서 당대 정계의 핵심세력인 김종수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고 그 간행

을 완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본고의 논의는 능호관 연구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출판문화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조선시대에 문집은 일반적으로 저자 사후에 편찬되었으므로 저자의 원고와 간본 문집 사이에는 ‘후인(後人)의 편집’이라는 매개변수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고에 의해 규명된 『능호집』의 편집시각은, 조선시대 문집 출판에서 편집이라는 매개변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기억됨 직하다.

참고문헌

1. 자료

- 李麟祥, 『雷象觀藁』, 후손가 소장본.
 李麟祥, 『雷象觀集』 元, 대전 연정국악원 소장본.
 李麟祥, 『雷象觀集』 亨·利,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본.
 李麟祥, 『凌壺集』, 한국문집총간 225.
 金履坤, 『鳳麓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金鐘秀, 『夢梧集』, 한국문집총간 245.
 俞晚柱, 『欽英』, 규장각 영인본.
 李敏輔, 『豐墅集』, 한국문집총간 232.
 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규장각 소장본.
 李胤永, 『丹陵遺稿』, 규장각 소장본.
 尹冕東, 『娛軒集』, 규장각 소장본.
 洪樂純, 『大陵遺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黃景源, 『江漢集』, 한국문집총간 224.
 『海平尹氏大同譜』, 海平尹氏大同譜刊行委員會, 1983.
 『正祖大王實錄』;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1970.

2. 단행본

- 김성윤, 『朝鮮後期 蕩平政治 研究』, 지식산업사, 1997.
 김명호, 『熱河日記 研究』, 창작과비평사, 1990.
 류탁일, 『嶺南地方出版文化論攷』, 세종출판사, 2001.
 유봉학, 『개혁과 갈등의 시대』, 신구문화사, 2009.
 이원식, 『조선통신사』, 민음사, 1991.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3. 논문

- 김성철, 「옛 사람들의 文集校正」, 『민족문학사연구』3, 민족문학사학회, 1993, 192~206면.

- 김수진, 「家藏本 『雷象觀藁』 小考」, 『한국문화』5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65~86면.
- 김수진, 『능호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226면.
- 김정자, 「英祖末~正祖 初의 政局과 政治勢力의 動向」, 『조선시대사학보』44, 조선시대사학회, 2008, 37~102면.
- 김하라, 「俞晩柱의 『欽英』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265면.
- 박경남, 「丹陵 李胤永의 『山史』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111면.
- 박광용, 「朝鮮後期 ‘蕩平’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296면.
- 박희병, 「이인상(李麟祥) <검선도>(劍僊圖)의 재해석」, 『국문학연구』26, 국문학회, 2012, 33~56면.
- 신익철, 「李鳳煥의 椒林體와 「落花詩」 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24, 한국한문학회, 1999, 215~243면.
- 유봉학, 「정조시대 정치론의 추이」,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개, 1999.
- 정만조, 「英祖代 中半의 政局와 蕩平策의 再定立」, 『역사학보』111, 역사학회, 1986, 63~111면.
- 최성환, 「正祖代 蕩平政局의 君臣義理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351면.

A Study of the Editorial Perspective of *Neungbojip*(凌壺集)

Kim, Su-Jin

Anthologies of Neunghogwan(凌壺觀) Lee Insang(李麟祥, 1710~1760) exist in several versions including *Neungbojip*(凌壺集), which is the printed edition(刊本), and *Noesanggwango*(雷象觀藁), which is the surviving manuscript(筆寫本) belonging to the descendent family.

Examining *Neungbojip* and *Noesanggwango* side by side reveals that,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Noesanggwango* embodies the literary world of Lee Insang more comprehensively, *Neungbojip* excludes important parts of his literary worl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what parts were omitted in *Neungbojip*, and why such omissions occurred.

Omissions of certain parts of *Noesanggwango* in editing *Neungbojip* seemed to have been based on principles which I categorized into four: “suppression of the characteristics as a concubine’s son”, “exclusion of reference to Toegye(退溪)”, “elimination of Taoist(道仙的) tendencies”, and “reduction of the tastes for material goods and illustrated calligraphy(書畫器物)”. The editor of *Neungbojip*, Yoon Myeon-dong(尹冕東, 1720~1790), did not fabric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thor, but delicately modified his true personality by marginalizing the four aspects through editing. By doing so, Yoon Myeon-dong aimed to project his own class and factional perspectives on the edition of *Neungbojip*, to embody the ideology of the nobility, and ultimately to acclaim(顯彰) him as the ideal loyalist out of office(義理型 處士). Such editorial perspective, propelled primarily by his personal urge, corresponded with the atmosphere of the time, which was a period of royal succession from King Yeongjo to King Jeongjo. As a result, Yoon could complete the publication with the financial support from Kim Jongsu(金鍾秀, 1728~1799), who represented the core political group at the time.

Keywords: Lee In-sang, *Neungbojip*(凌壺集), *Noesanggwango*(雷象觀藁),
Yoon Myeon-dong, Editorial perspective, Loyalist out of office(義理型
處士)

접수일자: 2013. 3. 31
심사기간: 2013. 3. 31~2013. 5. 20
게재결정: 2013. 5. 20